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0, No. 3 pp. 149-156, 2019

https://doi.org/10.5762/KAIS.2019.20.3.149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예비유아교사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회복 탄력성이 교직 전문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배재현
대구과학대학교 유아교육과

The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Resilience on Perception of Professionalism with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Jae-Hyun Bae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aegu Science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회복 탄력성이 교직전문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교직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예비유아교사 313명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SPSS 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변량분산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조절 효능감은 학년과 보육실습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통제성과 사회성, 긍정성은 학년과 보육실습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교직 전문성 인식은 학년, 보육실습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자기조절 효능감과 과제 난이도 선호는 교직 전문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조절 효능감과 과제 난이도 선호가 높을수록 교직 전문성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긍정성과 통제성도 교직 전문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긍정성과 통제성이 높을수록 교직 전문성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들의 교직 전문성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자기조절 효능감과 과제 난이도, 긍정성과 통제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resilience on perception of professionalism. The survey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313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SPSS Win program was used to perform M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1)The self-regulatory efficacy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grade and experience of child care practice. (2)The control and sociality, positivity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grade and experience of child care practice. (3)The perception of professionalism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grade and experience of child care practice. (4)The self-regulatory efficacy and the difficulty preference affected perception of professionalism. (5)The positivity and control affected perception of professionalism. This study indicated that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for increasing perception of professionalism i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Keywords : Academic Self-efficacy, Perception of Professionalism,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 Resilience, Self-Regulatory Efficacy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교육현장에서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요구되는 교사의 전문적인 교육기술 능력을 교직 전문성이라 한다[1]. 교직전문성 인식이 높은 교사일수록 전문성 신

*Corresponding Author : Jae-Hyun Bae(Taegu Science Univ.)
Tel: +82-53-320-1794 email: cinespac@tsu.ac.kr
Received December 12, 2018 Revised January 3, 2019
Accepted March 8, 2019 Published March 31, 2019

장 욕구 또한 높고 자긍심도 높아 효과적인 수업환경을 조성하고 교수행위를 위한 자율장학을 꾸준히 실천하며[2], 교사와 학생간의 상호작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3]. 그러나 유아교육기관의 원장들은 바람직한 교사의 자질로서 교직 전문성보다 영유아에 대한 애정과 신뢰, 책임감, 성실성, 원만한 대인관계와 같은 인성적 자질을 우선으로 꼽는다[4]. 하지만 교육 및 보육현장에서 유아교사의 전문성 지원의 기회가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연구[5]를 볼 때, 예비유아교사 시기부터 유아교사직을 전문직으로 인식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성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예비유아교사들이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할 과목중 하나는 보육실습, 교육실습, 교육봉사활동과 같은 현장실습과목이다. 실습기간동안 교사와 학생이라는 이중적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기에 심리적인 부담감이 크고, 실습기간동안 받은 부정적인 피드백이 강할 경우 유아교사직이 자신과 맞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진로의 방향을 바꾸기도 한다. 하지만 실습은 대학에서 배웠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들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된다. 교육현장에서 유아들을 직접 대면할 수 있어 유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수업관찰, 수업준비와 진행을 통해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기술과 태도를 익히게 되면서 교직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적 자질 향상을 도와 교사로서의 자신감 향상에도 영향을 미친다[6]. 따라서 교육현장 경험이 부족한 예비유아교사들의 경우, 현장실습 경험의 유무에 따라 교직 전문성 인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유아교육과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경우 유아교사직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을 가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소수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은 학습 동기를 가지고 출발하는데, 때론 학년이 올라가면서 전공과 진로에 대한 확신과 만족도가 높아지고 점차 능동적인 학습자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학습자로서 학업적 상황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나 기대를 학업적 자기효능감[7]이라 한다. 높은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들은 성취를 위한 내적동기가 강하고 자신감과 학업성취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8]. 또한 교사의 전문성 인식이 높을수록 교사효능감이 높다는 연구결과[9]와 특수학급 교사의 전문성 인식이 높을수록 학업적 교사효능감도 높다는 연구결과[10]를 접목해 볼 때, 예비유아교사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교직 전문성 인식과 관련될 것으로 추측되며 예비유아교사들의 학교적응력 뿐 아니라 교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유아교사직은 다른 학교 급에 비해 가장 어린 연령대인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하여 보호와 교육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기에 과중한 업무와 함께 수많은 도덕적 갈등과 윤리적 딜레마를 겪는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교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좌절, 우울, 불안, 피로와 탈진 같은 심리적 문제와 함께 직무수행에 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1]. 또한 심각한 수준이 아닌 일상의 사소한 스트레스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반복적으로 축척되면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12]에서 볼 때, 대부분의 교사들이 겪게 되는 교육 현장의 스트레스 상황을 잘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회복 탄력성은 개인이 가진 능력의 하나로 스트레스나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긍정적인 힘을 의미한다[13]. 회복 탄력성이 높은 교사는 소진을 적게 경험하고[14], 높은 직무만족도를 보이며[15], 역할갈등에도 쉽게 좌절하지 않고 극복하려 한다[16]. 또한 회복 탄력성은 교사 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유아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17]. 그리고 회복 탄력성은 도전적인 환경에서의 긍정적인 적응과 개인적인 발달을 포함하는 역동적인 개념이므로[18], 주로 현직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직전교사인 예비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교사의 회복 탄력성이 교사로서의 삶에 영향을 주는 내적인 보호요소로 작용한다는 연구[19]를 볼 때, 예비유아교사들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찾는 것은 이들의 현장 적응력을 높일 뿐 아니라 소진 예방을 위한 대비책이 될 것이다.

또한 Bobek[20]은 초임교사들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교직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습득, 자기 개발과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성공적 경험들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이는 회복 탄력성이 교직 전문성과 관련됨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것이 교직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1.2 연구의 목적

이에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회복 탄력성이 교직 전문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예비유아교사들의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회복 탄력성을 높여 교직 전문성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세부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학년, 보육실습 경험 유무)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회복 탄력성, 교직 전문성 인식의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회복 탄력성이 교직 전문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시 D대학교 유아교육과 재학생으로 2018년 9월 3일부터 9월 14일까지 총 320부의 설문지를 배포한 후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한 313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2 측정도구

2.2.1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Academic Self-Efficacy Scale)는 Kim과 Park[2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신감 8문항, 과제난이도 선호와 자기조절 효능감 각 10문항으로 구성된 총 28문항이다. 자신감은 자신의 학습능력에 대해 보이는 확인이나 신념이고, 과제난이도 선호는 학습자가 학업상황에 구체적이면서도 도전적인 목표를 선택하는 정도이며, 자기조절 효능감은 자기관찰, 자기판단, 자기반응과 같은 자기조절적 기제들을 자신이 얼마나 잘 수행할 수 있느냐와 관련된 개인의 판단이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제시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자신감 .87, 과제난이도 선호 .84, 자기조절 효능감 .85였다.

2.2.2 회복 탄력성 척도

회복 탄력성 척도(Resilience)는 KRQ-52 척도를 대학생에 맞게 수정한 Bae[22]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7문항으로 통제성은 원인분석력, 감정통제력, 충동통제력으로 구성된 9문항, 사회성은 관계성, 커뮤니케이션 능력, 공감능력으로 구성된 9문항, 긍정성은 감사하기, 생활만족도, 낙관성으로 구성된 9문항으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제시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 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통제성 .83, 사회성 .82, 긍정성 .88이었다.

2.2.3 교직 전문성 인식 척도

교직 전문성 인식 척도는 Song[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고도의 지적 능력, 사회봉사 기능, 자율성, 직업윤리, 사회 및 경제적 지위의 5개 영역으로 각 4문항씩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제시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교직 전문성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Cronbach's α 계수는 .81이었다.

2.3 자료분석 및 통계적 처리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그리고 학년, 보육실습유무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회복 탄력성, 교직 전문성 인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MANOVA를 실시하였고,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회복 탄력성이 교직 전문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산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은 여학생 310명(99%), 남학생 3명(1%)이었고, 학년은 1학년 107명(34.2%), 2학년 102명(32.6%), 3학년 104명(33.2)이었으며 보육실습을 받은 학생은 105명(33.5%)이었다(Table 1).

3.2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학업적 자기효능감

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MANOVA를 실시하였다. 자기조절 효능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2학년과 3학년이 1학년보다 자기조절 효능감이 더 높았고, 보육실습을 받은 학생들이 받지 않은 학생들보다 자기조절 효능감이 더 높았다(Table 2).

3.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 탄력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회복 탄력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MANOVA를 실시하였다. 회복 탄력성 하위 변인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2학년과 3학년이 1학년보다 통제성에서 더 높았고, 3학년이 1학년과 2학년보다 사회성에서 더 높았으며, 3학년이 1학년보다 긍정성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실습을 받은 학생들이 받지 않은 학생들보다 통제성, 사회성, 긍정성 모두에서 더 높았다(Table 3).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13)

Variables	Categories	N(%)
Gender	male	3(1)
	female	310(99)
Grade	1st	107(34.2)
	2nd	102(32.6)
	3th	104(33.2)
Experience of child care practice	None	208(66.5)
	Have	105(33.5)

Table 2. Difference of Academic Self-effica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313)

Variables	Categories	N	Difficulty preference		Self-regulatory efficacy		Self-confidence	
			M(SD)	F	M(SD)	F	M(SD)	F
Grade	1st	107	2.73(.54)	2.79	3.21(.50) a	6.23**	3.29(.78)	.84
	2nd	102	2.89(.60)		3.41(.54) b		3.25(.87)	
	3th	104	2.74(.50)		3.46(.62) b		3.39(.81)	
Experience of child care practice	None	208	2.81(.58)	1.11	3.31(.53)	5.16*	3.27(.82)	1.34
	Have	105	2.74(.50)		3.46(.62)		3.39(.81)	

*p<.05, **p<.01, ***p<.001

Table 3. Difference of Resilience, Perception of Professionalism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313)

Variables	Categories	N	Resilience						Perception of Professionalism	
			Control		Sociality		Positivity			
			M(SD)	F	M(SD)	F	M(SD)	F	M(SD)	F
Grade	1st	107	3.40(.49) a	9.91***	3.54(.48) a	10.02***	3.25(.63) a	7.73***	3.66(.45) a	9.97***
	2nd	102	3.65(.50) b		3.64(.51) a		3.46(.60) ab		3.72(.39) a	
	3th	104	3.72(.53) b		3.84(.49) b		3.59(.65) b		3.90(.37) b	
Experience of child care practice	None	208	3.54(.52)	7.82**	3.59(.50)	16.50***	3.36(.63)	8.71**	3.69(.42)	17.94***
	Have	105	3.71(.53)		3.83(.50)		3.58(.66)		3.90(.37)	

*p<.05, **p<.01, ***p<.001

3.4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교직 전문성 인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교직 전문성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MANOVA를 실시하였고,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3학년이 1학년과 2학년보다 교직 전문성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보육실습을 받은 학생들이 받지 않은 학생들보다 교직 전문성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3.5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회복 탄력성이 교직 전문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관련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직 전문성과 자신감간의 상관관계를 제외하고 모든 관련 변인들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교직 전문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선택방법에 의한 다중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은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하였고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VIF지수를 이용하였다. Durbin-Watson 지수가 1.97이므로 종속변수는 자기 상관이 없는 독립적이다. 독립변수 간 VIF지수는 1.10-1.18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조절 효능감과 과제난이도 선호 순으로 영향을 주고 설명력은 10%이고 과제난이도 선호가 추가되어 12%를 설명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중 자기조절 효능감과 과제난이도 선호가 높을수록 교직 전문성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회복 탄력성이 교직 전문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선택방법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Durbin-Watson 지수가 1.95이고 VIF지수는 1.00-1.86으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성과 통제성 순으로 영향을 주고 설명력은 15%이고 통제성이 추가되어 17%를 설명하였다. 회복 탄력성 중 긍정성과 통제성이 높을수록 교직 전문성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Table 4. Correlations Variables (N=313)

	1	2	3	4	5	6	7
1. Difficulty preference	-						
2. Self-regulatory efficacy	.39**	-					
3. Self-confidence	.24**	.31**	-				
4. Control	.29**	.59**	.22**	-			
5. Sociality	.21**	.52**	.41**	.67**	-		
6. Positivity	.30**	.47**	.35**	.68**	.68**	-	
7. Perception of Professionalism	.25**	.32**	.09	.37**	.31**	.39**	-
M	2.79	3.36	3.31	3.59	3.67	3.43	3.76
SD	.55	.57	.82	.53	.51	.64	.42

*p<.05, **p<.01, ***p<.001

Table 5. The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on Perception of Professionalism (N=313)

	Perception of Professionalism				
	B	β	R^2	ΔR^2	F
Constant	2.97				
Self-regulatory efficacy	.24	.32***	.10		35.06***
Difficulty preference	.11	.14*	.12	.02	20.92***

*p<.05, **p<.01, ***p<.001

Table 6. The effect of Resilience on Perception of Professionalism (N=313)

	Perception of Professionalism				
	B	β	R^2	ΔR^2	F
Constant	2.89				
Positivity	.25	.39***	.15		56.04***
Control	.15	.19**	.17	.02	32.34***

**p<.01, ***p<.001

4. 논의 및 결론

4.1 논의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고자 한다.

첫째, 2학년과 3학년이 1학년보다 자기조절 효능감이 더 높았고, 보육실습을 받은 학생들이 받지 않은 학생들보다 자기조절 효능감이 더 높았다. 이는 대학생의 학년에 따라 자기조절 효능감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7]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학년이 높아질수록 대학생활 적응 또한 높아진다는 연구결과[23]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예비유아교사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대학생활에 점차 익숙해지면서 대학 생활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자신만의 목표가 좀 더 뚜렷해진다. 즉 성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교사 자격증 취득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스스로 학업과 관련된 목표설정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다양한 전공과목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수업방식들에 점차 익숙해지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행동적 변화가 무엇인지 잘 판단하여 자기조절 기제 실행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보육실습과 관련된 위의 결과는 예비유아교사들의 교육봉사활동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24]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예비특수교사의 현장실습경험에 따른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25]와는 차이가 있다. 3년제 유아교육과의 경우, 보육실습은 3학년이 되어야 실시되는데 대부분의 예비유아교사들은 실습전 실습에 대한 부담감이 다소 큰 편이다. 하지만 실습기간을 무사히 마친 경우 보육현장에서 가졌던 다양한 경험들로 인해 자신에게 부족한 자질과 능력에 대해 확인하면서 남은 대학 생활동안 자신이 보완하고 노력해야할 부분들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둘째, 2학년과 3학년이 1학년보다 통제성에서 더 높았고, 3학년이 1학년과 2학년보다 사회성에서 더 높았으며, 3학년이 1학년보다 긍정성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실습을 받은 학생들이 받지 않은 학생들보다 통제성, 사회성, 긍정성 모두에서 더 높았다. 이는 예비유아교사들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회복 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26]와 일치한다. 1학년의 휴학 및 자퇴 사유중 전공과 맞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다음으로는 동기나 선배 등 대인관계 어려움을 꼽는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점차 개별 활동 이외에 조별계획안 작성 및 조별 시연수업과 같은 다양한 조별활동, 반별 활동들이 늘어남에 따라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조절하고 함께 하는 조원들과 협력해야하며, 같은 반 동기와도 긍정적인 상호작용에 익숙해지게 될 것이다. 또한 동기들과 좋은 교사가 되겠다는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서로 지지적인 관계가 될 것이고 소수의 친밀한 친구관계가 다져지면서 졸업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기대가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실수를 범한다 해도 실수로부터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이 있다[13]는 점을 볼 때, 대학 생활 속에서 겪은 보육실습은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3학년이 1학년과 2학년보다 교직 전문성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보육실습을 받은 학생들이 받지 않은 학생들보다 교직 전문성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년과 보육실습경험에 따라 예비보육교사의 교직 전문성 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27]와 일치하고 예비특수교사들의 현장실습이 교직수행능력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만든다는 연구결과[28]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고학년으로 갈수록 교양과목의 비중은 줄어들고 전공과목, 교직과목의 비중이 커지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교육계획안을 작성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구체적인 교육수행능력이 배양되게 되기 때문에 3학년의 교직 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3학년들도 자신의 교육계획안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무리없이 실현가능한지에 대한 끊임없은 의심과 고뇌의 과정을 겪기도 하는데, 이 또한 교직 전문성 향상을 돕는 시간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3학년 1학기에 실시된 보육실습을 통해 그동안 이론적으로 접했던 내용들과 실제 현장과의 괴리를 확인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강점과 단점 등을 파악하기 시작하면서, 교사로서 요구되는 역할들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유아들과의 상호작용기술, 동료교사와의 협력을 위한 기술, 교육현장에 대한 적응력 등 전문성 향상을 위한 경험들을 쌓게 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넷째, 학업적 자기효능감중 자기조절 효능감과 과제난이도 선호가 높을수록 교직 전문성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이 지각한 교수전문성이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29], 특수학급 교사의 전문성 인식이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도 높다는 연구결과[10], 자기효능감이 교직전문성 인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30]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예비유아교사들은 교육과정을 통해 유아교육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고 현장경험으로 실천적 지식을 좀 더 갖추면서 전문적 능력을 향상시키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자신이 달성해야 할 구체적인 교사상이 하나의 목표로 설정될 것이고, 이는 자신에게 요구되는 자기조절 전략과 기술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유아교사의 전문성 중에서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자질들을 함양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다양한 학습 과제를 위한 행동들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즉 이러한 선택과정에서 과제 난이도 선호를 조금씩 높이면서 좀 더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 설정이 가능해지고[31], 교직 전문성 인식 또한 함께 높아질 것으로 추측된다. 이처럼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교직 전문성은 상호 영향력이 있어, 추후에는 이에 대한 양방향적인 영향력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회복 탄력성 중 긍정성과 통제성이 높을수록 교직 전문성 인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의 회복 탄력성이 교사로서의 삶에 영향을 주는 내적인 보호요소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19]를 접목해 볼 때, 예비유아교사들은 교사로서 준비단계에 속하기에 교사직에 대한 기대뿐 아니라 다양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대학생활 기간동안 다양한 교수 경험 및 교육경험들을 통해 이러한 불안감은 점차 줄어들 것이고 유아교사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많은 두려움과 역경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와 자신감이 생겨날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대학 내에서 맺게 된 교수, 친구, 선후배와의 관계 맺기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알아채고 적절하게 조절하는 능력이 향상될 것이고, 교사가 된 이후에 예상되는 관계인 학부모,

동료교사, 유아들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교직 전문성 인식을 높일 것으로 생각된다. 회복 탄력성은 고정적인 능력이 아니고[32] 선천적인 측면과 함께 후천적인 측면으로 향상될 수 있기에, 예비유아교사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학과나 기관차원의 적절한 외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따라서 예비유아교사들의 회복 탄력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실시하는 것은 이들의 전문성 향상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4.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조절 효능감, 통제성과 사회성, 긍정성, 교직 전문성 인식은 학년, 보육실습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자기조절 효능감과 과제 난이도는 교직 전문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긍정성과 통제성은 교직 전문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결론을 통해 몇 가지 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교사의 교직생활 과정에 따른 비교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교사의 교직입문시기부터 교직생활을 지속하는 동안 새로운 지식을 쌓고 교수행동, 교육신념 등에도 지속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교사발달과 관련된 요인들에 따라 회복 탄력성, 교직 전문성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다면 교직주기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질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인 자기효능감, 교수효능감, 교사효능감, 학업적 자기효능감 등 다양한 자기효능감들에 대한 질적 연구는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변인들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비유아교사들이 대학 생활동안 다양한 성공적 경험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학과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면 한다. 보육교사의 학습공동체 경험을 통해 자신감이 회복되고, 업무 스트레스가 감소되며 미래의 역경을 극복하겠다는 긍정적 인식이 높아져 회복 탄력성을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33]를 볼 때, 대학기간동안 학과와 기관차원에서 학습공동체와 같은 성공적인 경험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이들의 회복 탄력성과 함께 교직 전문성 인식에도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References

[1] S. R. Song, Perception of Kindergarten Teachers Teaching Professionalism and Teacher Evaluation for Professional Development, Korea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7, no. 2, pp. 51-77, 2015.

[2] G. H. Go, A Study of the Performance of Self-Inspection by Private Kindergarten Teachers and the Development of Education Professionalism, Kyung-Nam University, 2013.

[3] S. H. Lee, Y. H. Kim, Educational Climate of Child Care Centers, Professionalism of teachers and Quality of Child Care Curriculum Implementation,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Child Care & Education, vol. 9, no. 3, pp. 75-93, 2013.

[4] Y. G. Lee, Kyo-Su, A Little view on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 College. cited Dec. 12. 2018.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43129

[5] H. S. Park, J. J. Kim, An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the Social Support Environment for Child Care Teachers upon Their Organizational Dedication and Awareness of Professionalism, Journal of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vol. 14, no. 4, pp. 145-164, 2010.

[6] A. N. Kim, A Study on the Pre-service Kindergarten Teacher's Emotion in response to Teaching Practice, Journal of Eco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0, no. 4, pp. 19-49, 2011.

[7] M. J. Park, The Effect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Problem-solving ability of college students on Adaptation to college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2018.

[8] J. H. Lee, J. Y. Ha, Effects of Academic Slf-efficacy, Learning Motivation and Learning Strategy on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Learner 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6, no. 5, pp. 259-278, 2016.

[9] J. Y. Song, S. J. Seo, The Effects of Pre-service Teacher's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Teaching Professionalism on Their Teaching Efficacy,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8, no. 4, pp. 293-321, 2011.

[10] Y. H. Kang, H. J. Han, Relationship Analysis of Teacher's Efficacy and Commitment to Teaching Profession on Accordance with Recognition of Special class teachers' Professionalism,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and Rehabitation Science, vol. 51, no. 1, pp. 91-108, 2012.

[11] H. Y. Shin, E. H. Lee, Effects of Teachers' Job Stress and Belief of Efficacy on the Quality of Teachers' Interaction Behaviors in Child Car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 26, no. 5, pp. 105-121, 2005.

[12] M. W. Fraser, L. D. Kirby, P. R. Smokoski, Risk and Resilience in Childhood, Washinton, DC : NASW Press, pp. 13-66, 2003.

[13] J. H. Kim, Resilience, Seoul-Wisdom House, 2011.

[14] H. I. Hwang, J. H. Tak, H. M. Kang,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 care teachers' burnout and their self-esteem in high and low resilience group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9, no. 4, pp. 31-52. 2014.

[15] H. O. Jung, D. H. Lee, The Influence of Job Stress, Ego-resiliency and Social support on Job satisfaction among beginning and experienced preschool teachers, Th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31, no. 3, pp.31-54, 2011.
DOI: https://doi.org/10.18023/kjece.2011.31.3.002

[16] S. H. Kwan, S. Y, Lee, Comparing Kindergarten Teachers' role conflict and its influence of Performance in high and low resilience groups. Th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31, no. 2, pp. 311-332, 2011.
DOI: https://doi.org/10.18023/kjece.2011.31.2.014

[17] S. H. Kwan, S. Y, Lee, An Analysis of Kindergarten Teachers' Resilience,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vol.. 27, no. 2, pp. 137-157, 2010.
DOI: https://doi.org/10.24211/tjkte.2010.27.2.137

[18] Q. Gu, C. Day, Teachers Resilience : A necessary condition for effectiveness,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vol. 23, pp. 1306-1316, 2007.
DOI: https://doi.org/10.1016/j.tate.2006.06.006

[19] S. Y. Kim, Resilience Analysis of the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Teach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Gong-Joo University, 2013.

[20] B. L. Bobek, Teacher resiliency : A Key to Career longevity, The Clearing House, Journal of Educational Strategies, Issues and Ideas, vol. 75, no. 4, pp. 202-205, 2002.
DOI: https://doi.org/10.1080/00098650209604932

[21] A. Y. Kim, I. Y. Park,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Academic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vol. 31, no. 1, pp.95-123, 2001.

[22] H. R. Bae, An Effect of College students' Resilience on Perceived Career Barri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gi University, 2012.

[23] S. D. Lee, M. A. Lee, A Study on Adjustment to College by Characteristics of students, The Research and Information Service, vol. 12, pp. 107-115, 2012.

[24] H. S. Kim, J. S. Choi, The Effect of Educational service activities on Pre-service early classroom, Academic self-efficacy, Career maturity,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0, no. 5, pp. 1-19, 2015.

[25] H. L, Park, A Study on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Pre-special Teachers' Self-efficacy, Academic Stress, Major recognition and Teaching ability,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Daegu University, 2017.

[26] A. K. Kim, The Relationships among Personality Types, Self-efficacy and Resilience i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 The Journal of Children's Media, vol. 14, no. 3, pp. 231-253, 2015.

[27] H. J. Kim, A Study on Perception about Teaching Professionalism of Undergraduates Who enrolled in the Department of Universities Which are related to Curriculum to become a Child Center Teacher, Journal of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vol. 17, no. 3, pp. 549-565, 2013

[28] E. H. Jung, A Study on Trend of Prospective Teachers Special Education in Korea,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 15, no. 3, pp. 47-71, 2014.

[29] J. H. Kim, The Effect of Teaching Expertise perceived by students on Academic Achievement and Self-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University, 2010.

[30] H. Go, J. H. Na, An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on the Perception relationship between Teacher core competency and Teach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Pre-service teachers, Journal of Learner 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8, no. 18, pp. 197-220, 2018.
DOI: https://doi.org/10.22251/jlcci.2018.18.18.197

[31] A. Bandura, Human agency in social cognitive theory paper presented at the 24th International Congress of Psychology, Sydney, Australia, 1988.
DOI: https://doi.org/10.1037//0003-066x.44.9.1175

[32] Q. Gu, C. Day, Challenge to Teacher Resilience : Conditions Count, British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vol. 39, no. 1, pp. 22-44, 2013.
DOI: https://doi.org/10.1080/01411926.2011.623152

[33] S. I. Lee, Exploring Resilience Experience through Child Care Teachers' Participation in a Learning Commun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Bae-Jae University, 2017.

배 재 현(Jae-Hyun Bae) **[정회원]**

- 2000년 2월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가정학과 (가정학석사)
- 2007년 2월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족학과 (이학박사)
- 2016년 3월 ~ 현재 : 대구과학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관심분야>
아동발달, 유아교육